원효 스님의 지혜가 간절하다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겨울 내내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이쪽 편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며 저쪽 편이 맞다고 고개를 주억거리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강요하고 섣불리 우길 일은 아니다. 무엇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안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조건인가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는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처럼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고 그것이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1400년 전,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내었던 원효 스님이 이미 답한 바가 있다. 화쟁이라고 하는 답변이다.

화쟁(和諍)! 서로 부닥치고 대립하는 주장을 화회(和會)시킨다는 말이다. 서로 대립하고 마침내 갈등을 불러오는 주장을 화회하는데 이르게 된 상태를 화쟁(和諍), 무쟁(無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결과로 이르게 된 사회의 상태를 우리는 공존 그리고 공생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말한 화쟁은 무조건적인 조화, 무조건적인 양보, 무조건적인 대립의 종식을 말하지는 않는다. 원효 스님이 말하는 화쟁은 엄밀한 세부적인 조건을 요청한다.

화쟁의 첫 번째 단계는 서로 대립되는 각자의 주장이 동일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목표가 동일하지 않은 주장과 방법론이 접점을 가질 가능성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 대한 불교적 해법 '화쟁'
화쟁, 3단계 거친 디테일 있어
솔직함 성취할 때 공존 가능해

정치권력의 획득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존·공생의 조건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 두 목적에서 양자는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화쟁의 두 번째 단계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각자의 주장이 합리적인 합목적적인 인과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연기법적으로 정당한가의 검증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더 선명하다. 선인선과 악인악과(善因善果 惡因惡果)이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연결고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주장 자체가 오류가 되어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 된다.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릇되었기에 파척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른바 파사(破邪)의 대상이다.

세 번째 단계가 진정한 화쟁이다. 대립되는 두 주장이 연기법적으로 정당한 주장일 때, 그리고 주장의 목적이 동일할 때, 그 대립되는 두 주장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주장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주장이 된다.

대개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보지 않을 때이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보살이 갖추어야 할 열 가지 곧은 마음(直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핵심은 솔직함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 스스로에게 솔직한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솔직한가이다. 그 솔직함을 성취할 때 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고, 거기에서 공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400년 전 원효 스님의 지혜가 더욱 간절해지는 지금이다!

정치 편향성, 뉴스 회피 야기한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뉴스 회피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스트레스, 분노,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러한 감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뉴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뉴스미디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회피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곧, 언론이라는 공적 기관이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위기에 처해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뉴스 이용 행태 변화와 뉴스 회피〉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뉴스 회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의 70%가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뉴스 회피의 가장 큰 원인은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치권의 갈등 보도, 사실 검증이 부족한 단순 대립 구도의 기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보도 방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정치적 논쟁 중심의 뉴스와 부정적 사건·사고 보도를 가장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아,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뉴스 신뢰한다" 응답 25%뿐
레거시 미디어도 이젠 선택지
독자 신뢰 구축 등 혁신 필요

25%에 불과했다. 뉴스가 개인에게 무관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역시 뉴스 회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인들조차도 이러한 뉴스 회피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언론인들이 스스로 뉴스를 회피한 경험이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뉴스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뉴스 형식과 포맷이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대체 정보 채널과 비교할 때 뉴스의 전문성과 심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뉴스 회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은 어떠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뉴스 이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원하며,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심층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보도를 지향하고, 문제 지적이 아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보도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뉴스의 개념과 이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뉴스뿐만 아니라, SNS와 커뮤니티에서 생산·유통되는 정보 또한 뉴스로 인식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는 더 이상 독점적인 뉴스 공급자가 아니며, 단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뉴스의 개념과 소비자의 행태가 급변하는 언론 생태계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변화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생만물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찰나 변화한다는 진리를 언론은 잘 새겨야 한다.

社 說

한국불교 흥기 기회, 놓쳐선 안된다

2024년은 단연 불교의 해였다. 소위 '힙한 불교' 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참선 수행하고 염불하던 이미지의 불교가 아니었음을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불교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올해에도 이를 분위기를 이어갈 모양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이 힘들 때 도움이 된 책으로 불서 〈초역 부처의 말〉을 꼽았고, 블랙핑크 출신 가수 제니가 신곡으로 불교적 메시지가 담긴 'ZEN'을 발매해 화제가 됐다. 특히 제니의 'ZEN'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가사에 담긴 불교적 메시지를 찾아 공유하는 등 그 파급력이 상당해 눈길을 끈다.

반응도 폭발적이다. 팬들은 "불교의 '선'을 제목으로 하고 가사에서도 불교적 내용을 담은 제니의 신곡 〈ZEN〉에 압도 당했다" "불교책을 읽어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MZ세대, 알파세대가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들의 호응과 관심을 어떻게 지속하고, 불교 신행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다. 높았던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단순히 1회성 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 흥기(興起)의 기회이다. 이 같은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아쉬움 남긴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

서산 부석사의 관세음보살님이 647년 만에 부석사로 돌아왔다. 서산 부석사는 1월 24일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 이운·고불식을 봉행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간 부석사 설법전에서 친견할 수 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은 1330년 부석사 불상을 조성했다는 복장 결연문을 토대로, 고려 말기 왜구들의 약탈에 대마도로 옮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한국인 5명이 대마도 사찰에 침입해 관음상 등을 훔쳤고, 이후 인터폴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이 절도범 일당을 검거했다.

원소유주가 부석사임이 확인되며 서산 부석사는 2013년 '부석사 금동관음보살 제자리봉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에 불상 반환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리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일본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충남 지역 불교계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음상의 환수를 추진할 뜻을 내보였다. 설정 대종사는 고불식 법문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 32가지로 중생의 괴로움을 건져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 반드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지본처도 마찬가지다. 환수의 원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열릴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1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